

코스콤,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1 정지석 코스콤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만나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기를 지원했다. 2 어르신 배식 봉사활동 모습

취약계층 나눔 봉사 진행

정지석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반납한 임원 급여로 사회공헌을 했다. 임원들은 급여의 일부를 반납해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했다. 영등포구 내 지역 상인들로부터 쌀과 식용유, 세탁제 등 생활필수품을 구매해 푸드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정 사장과 코스콤 대외협력팀은 지역사회 배식 봉사를 했다. 영등포구청과 함께 영등포구 내 독거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 봉사활동을 했다. 취약계층 어르신 700여명이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음식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을 함께 돕기 위해 영등포구 18개 동의 지역식당과 7월 한 달간 릴레이 음식 대접 일정을 진행했다.

방역용품 및 생필품 제공, 취약계층 온라인 학습지원

올해 2월과 3월, 영등포구 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50개소)을 위한 방역 소독기와 손 소독제를 지원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했다. 부산시 동구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온라인 학

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태블릿 PC 70여대를 지원했다. 사회적으로 고립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1인 기초생활 수급자 300명에게는 생필품 키트를 제공했다.

코스콤 관계자는 “지역사회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자본시장 IT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코스콤 또한 코로나 리스크에서 자본시장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⑦

